

공산주의 세계관을 극복하는 길

—「공산주의의 종언」을 읽고 나서—

경제학은 사람과 물건과의 교류관계의 연구학이다.
사람은 주체이고 물건은 대상으로 한다.



山崎 仁

야마자키 마사시

(前 關東學院大 경제유통학)

目 次

- | | |
|---------------------------------|---|
| 1. 승공이론의 大著에서 배운 것 | 실과 그 사상체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
| 2. 공산주의와 마르크스주의의 관계 및 극복이론에 대하여 | (1) 존재와 당위(Sein-Sollen)의 가치론
(2) 원한의 이론에서 사람의 이론으로 |
| 3. 유통경제에서의 승공론—마르크스 학 | |

1. 勝共理論의 大著에서 배운 것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경제학자 갈브레이드(J.K. Galbraith)가 『경제학과 論爭術』(Economics and the art of controversy)라는 책을 쓴 일이 있는데, 그는 「적을 이기고 싶은 사람은 그 적에게 책을 써달라고 부탁할 일이다. 그것도 책을 쓰는데는 과장해 쓰는 것이 더욱 좋다」고 말했다. 저명한 경제학자가 논문을 발표하면 당연하다고 할 정도로 논평과 반론이 나오는 법이다. 갈브레이드의 말을 빌 필요도 없이 경제학자는 論爭人이다. 筆者의 경우 경제학을 직업으로 삼고 있으나 그야말로 論爭術은 서툴러서 경제논쟁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킬만한 기량도 없고 학문의 조예도 없다.

그러나 이번의 統一思想의 研究課題와 使命은 「勝共理論」—共産主義의 세계관을 극복하여 새로운 世界觀을 탐구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므로 共産主義者에 대한 논쟁을 각오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갈브레이드가 말했듯이 공산주의의 敵을 이기고 싶다면 공산주의의 基本理論인 마르크스主義 理論과 싸워야 한다. 그러므로 그 적이 쓴 방대한 資本論과 씨름을 해야 하겠지만 다행히 李相憲선생이 勝共理論의 大著 『共産主義의 終焉』을 일본에서 출판하였으므로 자본론의 克服은 오직 이 교과서에 의존하고자 한다.

우선 「勝共」論爭의 마음가짐을 갖추기 위해 이 論著를 알아보기로 한다.

李先生은 本書의 서문에서 이렇게 주장한다. 이 새로운 世界觀은 統一思想에 바탕을 둔 것으로

로 그 骨子は 「神의 召命에 따라 기독교의 秘義를 解明하신 文鮮明선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어 받은 思想」이라고 언명하고 있다. 우리는 이 골자에 따라, 하나님을 否定하는 共産主義, 暴力革命을 수단으로 삼아 하나님의 地上天國 構想에 거역하려고 하는 공산주의자 사탄에 대하여 勝共의 싸움을 決意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 공산주의자들의 蠻行과 世界制霸 野望을 우려하면서도 오늘날까지 宗教人도 教育者도 哲學者도 이 잔학한 사상과 세계관에 壓倒되어 피해다니고 있었다. 그러나 이대로 放置해두면 공산주의는 세계적으로 蔓延될 危險性이 있다. 이를 우려한 統一教會는 國際勝共聯合을 發足하여 공산주의와 이것을 支援하는 마르크스주의와 감히 對決하는 운동을 급속히 전개하기로 하였다.

勝共理論의 教科書 『공산주의의 종언』은 공산주의 이론의 提唱者 마르크스의 死後 꼭 100년이라는 攝理的인 해의 公刊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本書의 토대는 이미 10년 전에 李선생의 論著 『새로운 공산주의의 批判』으로서 公表된 것으로, 그 후에도 마르크스學說의 批判分析이 積적, 보완되고 수정이 가해져 이번의 기념할만한 체계적인 책으로 公刊된 것이다.

本書에 굳이 「終焉」(Zum Abschluss)이라는 語句를 써서 題名을 붙인 점은 중대한 의의를 갖는다. 저자는 「여기에 발표하는 統一思想에 의해 憎惡의 사상인 공산주의는 소멸하고, 싸움이 있는 곳에 平和가,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찾아와 사랑과 평화의 理想世界, 地上天國 유토피아가 실현되도록 기도함으로써 이 著書의 召命的 役割을 기대하고 있다.」이 책의 序文한 내세운 이 平和에의 念願, 地上天國 實現의 經綫은 통일교회신도 전원의 決意를 저자가 대변에 것이라고 믿어진다. 종래 승공이라는 문자의 概念이 오해를 받은 일도 있었으나 이 책의 서문에 쓰여진 말을 통해 평화에의 念願으로 풀이되어 종래의 誤解도 소멸되리라 믿는다. 다만 우리는 마르크스주의의 破壞的 사상을 미워하고 이 사상은 사탄적 성격을 띤 것으로 배제되어야 한다는 결의는 不動이다.

本書는 이와 같이 勝共理論의 텍스트로서의 고유한 성격과 더불어 마르크스주의의 사상, 哲學, 세계관, 그리고 경제학의 領域에까지 걸친 學術研究書로서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경제학의 문제로 보는 마르크스資本論의 性格, 目的性을 지닌 勞動價値說, 잉여가치설의 학술적 분야나 심지어 자본주의 경제의 構造, 經濟循環의 법칙까지 상세하게 해명하고 있는 등 경제학의 學術書 성격도 띠고 있다. 이 책은 마르크스경제학을 이해하는 훌륭한 참고서이며 또한 反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에게 있어서는 특히 귀중한 研究資料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이 책에 의해 古典派 경제학이나 新고전파 경제학, 또는 限界効用學派 등이 마르크스주의 경제학과 어떻게 다른가, 그 문제점의 이해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論爭學으로서의 경제학의 입장에서 上記의 限界効用學派가 마르크스주의, 資本論, 勞動價値說 및 잉여가치설과 어떻게 대결했는가에 대하여, 한계효용학파의 대표적 인물이며 철

저한 반마르크시스트이고, 최종적으로는 마르크스학설 체계의 『終焉』을 발표한 경제학설 史上 注目할만한 학자 베임 바베르크(Böhm Bawerk, 1851~1914)의 論著와 그 골자를 소개한다. 그 이유는 우리의 반마르크스의 승공이론이 『共產主義의 종언』이고, 그의 『反마르크스理論』은 『마르크스학설體系の 終焉』(Zum Abschlussdes Marxschen Systems)으로 공산주의 否定과 마르크스주의 否定에서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周知의 사실처럼 限界効用學派의 창설자는 카알 멩거(Carl Menger, 1840~1921)로, 이 學派의 基本적 指導理念은 가치의 근거를 효용에서 찾고, 이 기본이념에 따라 利子·貸金·地代 등 까지 說明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 학파의 분석방법의 특징은 이른바 主觀主義的 方法으로써 價値概念을 인간 마음의 작용으로 보고 說明하고자 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 학파의 분석방법에서 영국 고전과 경제학의 객관적 分析方法과 대립하고, 스미드나 리카도의 勞動價値說을 비판한 것인데, 이 학파를 오스트리아 학파로써 확립하기 까지는 上記의 베임·바베르크의 공적이 매우 크다.

그의 價値說과 마르크스주의와의 대결은 1886년 『經濟財 價値의 基礎理論』(Grundzüge der Theorie des wirtschaftlichen Güterwerts)의 발표로 시작되어, 주관적 價値論과 價格論을 확충하면서 방대한 『資本과 利子論』(Kapital und Kapitalizins)을 발표하고 거기에 더 추가해서 발표하여 그 학자적 명성을 얻었는데 특히 그를 저명하게 만든 것이 上記의 반마르크스論爭著 『마르크스학설體系の 終焉』(1896)(日本評論社, 竹村八郎譯, 1931)이다.

이 論著에서 마르크스의 資本論은 종횡으로 검토되었는데 특히 마르크스의 價値論, 잉여가치론 및 생산가격론이 하나하나씩 反證의 대상이 되었다. 그에게 있어서 방대한 자본론은 분명 「적을 이기고 싶다면 그 적이 과장한 책을 쓰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 갈브레이드의 표현대로이며, 마르크스 資本論 제1권과 제3권 사이의 모순의 지적에서, 全卷에 걸쳐서 마르크스 체계의 誤謬로 여겨지는 것을 철저히 비판했던 것이다.

그러나 베임 바베르크는 위의 기술에서 보는 것처럼 마르크스學說의 「終焉」으로서 학설적으로 모순의 폭로에 성공한듯이 보이지만, 문제의 本質 파악, 즉 자본주의 경제를 긍정하는 입장과 부정하는 입장의 차이와 분석방법의 차이(主觀主義的 立場과 客觀主義的 立場)에 주목하면 예리한 의견의 대립은 당연하다고 저명한 이론경제학자 J.A. 슈페터(1883~1950)는 이 격렬한 논쟁을 평가했다.

한편 베임의 이 論著는 명성을 얻고 1898년에 런던에서 英譯 출판되었는데 그 제목은 『마르크스와 그 체계의 終焉』(Karl Mark and the Close of His System)으로 수정되었고, 다시 그 후 1949년에는 뉴욕에서 출판되었으나 이 『終焉』(Zum Abschluss, the Close)이라는 말이 분명하지 않아 학술논쟁으로 오해를 초래한다고 해서 『마르크스 경제학체계의 모순』(Unresolved Contradiction in the Marxian Economic System)으로 영문 제목이 수정되었다. 한편 이 용어에 관련된 표현으로 古典經濟學에 반대했다고 간주되어 『케인즈혁명』(Keynesian Revolution)

이라고 불렀던 J.M. 케인즈는 『自由放任主義의 終焉』(1926)으로 “The End of Laisser Faire”이라는 어구를 사용했다.

위의 문제와 우리의 勝共論 텍스트의 『共產主義 終焉』의 제목이 의도하는 바는 크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승공론이 의식하는 「終焉」은 공산주의 思想의 破壞性 「否定」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2. 共產主義와 마르크스主義의 관계 및 극복이론에 대하여

前項에서 승공론 텍스트題名의 意義를 說明하고 共產主義 否定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는데, 이 경우 우리가 하는 勝共의 직접-목적은 공산주의이지 마르크스주의가 아니다. 前項에서 베임 바베르크는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자기가 세운 이론의 세계관과 다른 마르크스주의의 경제학 또는 마르크스주의 체계를 부정한 것이다. 이 두 가지 명칭은 본래 각자의 고유한 意義를 갖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는 混用하여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는 두 가지 概念의 同一性和 限界性을 說明하고자 한다.

오늘의 共產主義(communism)는 단순한 학설이나 理論의 集合體系가 아니라 사상적·정치적, 또는 실천적인 사회운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운동은 이른바 해방운동으로, 世界各國의 勞動者階級 前衛機關인 「공산당」에 의해 지도되어 세계적 규모로 전개하고 있는 노동자 解放運動이다. 지지하는 바와 같이 이 해방운동 즉 思想的·政治的 革命運動은 하나의 기본 綱領에 의해 지도받고 있다. 이 指導指針은 공산주의자 동맹의 강령으로 이른바 「共產黨宣言」(Manifest der Kommunistischen Partei)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이 黨宣言은 1848년 2월에 公表된 것이고 강령의 起草者는 마르크스와 엥겔스이다.

따라서 실천운동으로서의 공산주의는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思想(일반적으로 마르크스주의)에 바탕을 두고 전개되고 있다는 말이 된다. 이 경우 마르크스주의(Marxism)는 마르크스·엥겔스의 思想哲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산주의와 마르크스주의는 마치 자동차의 양쪽 바퀴의 관계, 포리일체의 관계이므로 공산주의와 마르크스주의의 개념이 혼동되는 것이다.

共產主義는 세계 도처에서 스트라이크, 테러, 반란, 혁명 등의 폭력적 手段으로 社會混亂을 일으키고 自由世界를 그들의 理想으로 여기는 공산주의 사회로 이행시키려고 하고 있다. 우리의 勝共運動은 이 革命運動을 부정하고 승공이론의 指針인 「共產主義의 終焉」을 추진코자 하는 것이다.

위의 기술로 공산주의와 마르크스主義의 관계는 명확해졌으나 우리는 공산주의의 행동을 부

정하려면 행동을 뒷받침하는 論理인 마르크스主義의 克服을 생각해야 한다. 다만 이 抽象의 名稱의 論理는 용이하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므로 그 세가지를 별개로 分析批判하여 극복하면 충분하다. 첫째는 마르크스의 「史的唯物論」 둘째는 「마르크스 경제학」, 셋째는 마르크스 특유의 「科學的 社會主義」의 實踐理論이다.

이들 세가지에 대해서는 上記의 승공이론 『共產主義의 終焉』 가운데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상세하게 분석되고 비판되고 또한 統一思想的 代案(극복론)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3항목의 意義와 공산주의와의 관련성만을 기술하기로 한다.

첫번째의 「史的唯物論」은 마르크스主義體系의 大前提이다. 그러나 이 이론은 마르크스가 두 사람의 선각자의 認識論과 哲學에서 흡수하여 자기의 認識論化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그 선각자란 철학자 헤겔과 사상가 포이엘바하이다. 그는 前者로부터 辯證法의 論理를 흡수하고 後者에게서 唯物論을 배워 양자를 교묘하게 組織化하고 「辯證法的 唯物論」(유물변증법) 체계를 세웠던 것이다.

이 分析을 上記의 勝共論 텍스트에서는 「변증법을 세계 전체에 일관된 一般法則으로서 파악한 것이 헤겔과 마르크스이다. 헤겔은 思考의 發展法則으로서 변증법을 定式化하고, 이것을 自然과 社會의 發展法則에 適用시켰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헤겔의 觀念的 辯證法을 유물론적으로 바꾸어놓고 物質世界에서의 발전법칙이 근본이며 思考의 발전법칙은 그 反映이라고 주장했다」고 해설하여 헤겔로부터 수탈한 認識방법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있다(p. 102~104).

다음에 또 한가지 중요한 論理의 收奪을 지적하면, 헤겔의 「觀念的 辯證法」은 자연·역사·정신을 「絕對精神의 自己展開」로 형용하는 정신의 연속적 발전과정으로 분석하여, 精神作用의 「肯定—否定·總合」(正·反·合)의 3단계적 과정의 되풀이 발전으로 定式化하고 있는데, 마르크스는 이 헤겔의 3단계 發展形式도 자기목적의 革命的 階級鬭爭의 논리로 전환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分析에서 마르크스의 史的唯物論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헤겔의 변증법과 포이엘바하의 唯物論에 접근해야만 한다는 것인데, 우리의 統一原理와 統一思想은 그 「統一存在論」에 있어서 유물론을 극복하고 또한 그 「四位基臺論」에서 헤겔적 「正·反·合」의 변증방식을 「正·分·合」의 授受作用의 統合이라는 論理로 극복해낸 것이다.

두번째 마르크스 경제학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合作에 의한 「資本論」 3권에 집약된 경제이론의 체계이다. 그 제 1권은 1867년에 마르크스 자신이, 그 외에는 마르크스의 遺稿를 토대로 엥겔스에 의해 1885년에 제 2권, 95년에 제 3권이 출판되었는데, 통념상 이 3권안에 담긴 내용을 총칭하여 마르크스 경제학이라고 여긴다. 따라서 마르크스 경제학의 批判이나 克服이라는 문제가 되면 立論의 전체를 대상으로 삼아야 하므로 용이하지 않다. 그러므로 중점적으로 마르크스·엥겔스가 학설적으로 무엇을 말하려 했고 무엇을 주장하려 했는가에 문제점을 集約하면 마르크스 경제학의 特質을 이해할 수 있고, 그 특질이 社會主義 經濟學으로서

의 意義를 부여하게 되리라 생각한다.

첫번째 문제점은 마르크스 자신의 손으로 쓰여진 자본론 제 1권에서, 왜 상품價値의 分析論에서 시작했는가 하는 점이다. 商品價値를 자기목적으로 분석하고 의의를 부여함으로써, 그가 부정하고자 했던 資本主義 經濟의 構造와 循環의 批判이 가능하다. 상품가치 속에 資本主義의 악의 根源·에너지가 내포되어 있다. 이것을 確認하고 천하에 公表하면 노동자는 노동의 착취에 분노하고, 이 理論을 기초로 하면 그의 숙명적 念願인 혁명운동의 目的達成에 도움이 된다고 믿었다. 이것이 마르크스의 「勞動價値說」이고 「剩餘價値說」의 意義이다.

그의 商品價値 分析에는 소정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맞춰서 論理를 전개해야 했던 것이다. 상품의 가치는 勞動이 결정하는 것이고 상품속에 포함되어 있는 剩餘價値를 資本家가 이윤으로 착취하고 있다고 이의를 제시해야 했던 것이다. 그의 분석방법은 자기목적의 방향에 유리하도록 유도한다는 테두리 안에서 행해졌다고 하는 점이다.

마르크스의 勞動價値 分析은 이와같이 意圖의이었으나, 그 立論에 방향을 부여한 것은 古典派 經濟의 始祖인 A. 스미드이며, 이 경제학의 形成에 공헌한 D. 리카르도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자유주의 경제학파의 長老의 존재인 스미드나 리카르도도 勞動價値說의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상품의 客觀的 가치를 容認하고자 하면 노동이 맡는 역할을 評價하고 계량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本稿의 서두에 「마르크스학설 체계의 終焉」을 쓰고 마르크스의 勞動價値說을 철저히 비판한 베임 바베르크도 그 批判書에서 마르크스는 아담 스미드와 리카르도의 경제학에 依存(dependence)하여 그 論理를 인용한 것은 사실이다. 이 두 사람의 價値概念의 불분명함(ambiguity)이 社會主義者에게 과장하여 받아들여졌다고 해서 古典學派의 노동가치설에도 오해(erroneous)가 있다고 비판했다.

위에서 기술했듯이 마르크스의 노동가치설이나 잉여가치설은 資本家에 의한 노동의 擄取를 意圖의으로 설득코자 하는 商品分析論이며 상품가치론이고 또한 상품가격이므로 反論의 材料는 얼마든지 나오지만 立論의 前提인 「자본가는 노동자의 착취자」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是正하지 않는한, 이 전체에 선 가치론과 노동의 착취가 아니라는 입장의 價値論과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경제학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오늘날처럼 生産概念과 商品概念이 多樣化되고나면 생산에 投入되는 노동량은 현저하게 감소되는 것이 확인되므로, 만일 노동이 시스템 생산(System Production)중의 단순한 補助的 역할을 담당하는데 불과하게 되면, 이미 勞動價値說의 意義도 현저하게 변화하거나 후퇴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또한 여기서 마르크스의 剩餘價値論에 대하여 오늘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 ① 노동력은 可變資本이고 다른 생산요소는 不變資本이라는 것,
- ② 기체는 이윤을 생산하지 않는다. 노동력의 生産性을 돕는데 불과하다.

위와 같은 가설이지만 現狀의 메카트로닉스시대에서는 高度의 기계장치야말로 可變資本이고 利潤의 근원이다. 가치를 生産으로 이동하는데 인간의 노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계에 와 있다. 또한 로봇인간은 高度의 組織的 行動裝置이지만 인간과 마찬가지로, 혹은 그 이상의 生産性을 가지고 있다. 마르크스가 살았던 시대의 産業構造는 生産과정, 아직 노동력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었으므로, 마르크스의 假定인 기계작용은 노동의 補助的 역할을 하는데 불과하다는 論理는 당시의 조건에는 맞지만 오늘의 조건에는 맞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이미 展開를 시작하고 있는 情報化社會에서 價値를 창조하는 것은 이제 人間勞動이 아니라 고도의 技術시스템으로, 情報的 상품가치가 GNP의 50% 이상을 초과하려 하는 상태이다. 이들 諸條件을 종합하면 마르크스경제의 根幹이었던 勞動價値說, 剩餘價値說은 再구축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科學的 社會主義의 實踐理論 문제는 마르크스주의의 논리체계에서는, 資本論이 규정하는 두 가지 가치설에서 유도되는 결론적 의의를 지니고 있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체제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순환적 결함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체제 스스로 弱體化의 방향으로 나가는 숙명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그 주장의 內在的 모순은 세 가지로 집약되는데

- ① 첫째는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投下資本에 대한 이윤율의 低限性이 증대한다.
- ② 두번째는 자본집중과 擴大生産主義가 제한없이 진보한다.
- ③ 세번째는 ②의 결과 소수 巨大자본가들이 출현하고 필연적으로 貧困勞動者가 증가한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마르크스 경제학의 目標는 정열적이고 원한적인 科學的 社會主義 體制運動을 뒷받침하는 체계적 이론의 構築이었다. 그가 시도한 과학적 사회의 실현에는 두가지 수단이 있다. 그 하나는 적극적으로 노동자를 단결시켜 폭력을 통하여 體制反抗을 행하는 것, 또 하나는 소극적으로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내포하는 모순을 종합화하여 자연적 붕괴의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本項의 앞에서 지적한 共產主義 運動은 前者를 지칭한 것인데, 이 마르크스운동의 理論的 투쟁의 理論武裝이라고 보는 경제학은 後者에 대한 것이다. 적극과 소극 양면으로, 즉 공산주의와 마르크스주의 양면작전에 의해 資本主義體制를 타도하고 社會主義體制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다.

上記의 內包的 모순의 첫번째 지적에서,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는 잉여가치론으로 해명했듯이 不變資本(기계와 원료, 노동력 이외의 投入코스트)과 可變資本(노동력)의 관계에서, 자본주의가 高度化하면 할수록 機械設備에의 투자자본량(in-put)은 증대하지만 生産財數量(out-put)과의 증가관계에서 이윤율은 서서히 低下하여 生産계획의 수행이 차츰 곤란해지고 기업 도산으로 물리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 점에 관련하여 저명한 理論經濟學者 슈페터(J.A. Schumpeter, 1883~1950)는 『資本主義·

社會主義·民主主義』(Capitalism, Socialism, Democracy: 1942) 속에서 자본주의 체제는 自由放任의 市場經濟에서 사회주의적 混合經濟體制의 방향으로 수정화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여, 이윤율 저하경향의 분석에 同調的 論述을 행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소개한 자본주의적 경제학자 갈브레이드는, 자본주의는 새로운 국가독점 자본주의체제로 이행한 단계에서 고도의 테크노 스트럭처(Techno-structure)의 산업구조가 실현되어, 大企業에 의한 시장관리가 가능해지므로, 이 이윤율 저하경향에는 브레이크가 걸린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社會主義化(計劃經濟化)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두번째의 資本集中主義 경향에 대해서는, 공업화 사회의 생산방식은 원칙적으로 規模의 이익을 추구하므로 生産은 소규모보다 中規模가, 중규모보다 대규모가 이윤율이 높게 되어 있다. 이 대규모의 논리(Economic of Abundance)는 자본주의 체제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체제의 사회에서도 採用하고 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부터 脫工業化社會의 주장이 나오고부터 대규모주의가 수정화되고, 또한 修正資本主義 論義가 행해지게 되었다.

또한 자본주의 공업국에서는 두차례의 석유 쇼크를 경험하고 나서 대규모주의, 즉 자본중심주의의 반성 경향이 강해지고 있고, 生産의 中規模방식으로 수정되고 있다.

세번째의 빈곤노동자의 증가 논리는, 마르크스가 이 재료와 환경분석을 자기가 살았던 시대의 상황에서 推論한 것인데, 확실히 마르크스가 살았던 19세기 중반부터 말기에 걸친 産業資本의 노동자에 대한 諸對策은 엄격했으므로, 마르크스는 자본체제가 강대해지면 더욱 빈곤노동자는 증대한다고 예측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마르크스 死後 100년간의 노동자의 생활수준 傾向, 특히 제 2차대전 이후의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노동자의 생활수준은 향상되어 大衆的 貧困現象은 低落하고 있다.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悲觀的 예측은 아래 기술한 여러가지 사실로 修正되어야만 하게 되었다.

1. 노동의 생산성은 年率 평균 2%정도 증가하고 있다.
2. 자본과 勞動比率도 증대하고 있다.
3. 資本利益率의 추세는 여전히 높다.
4. 임금과 이윤의 분배율도 장기적으로 비관적 材料가 보이지 않는다.

이상, 공산주의와 마르크스주의와의 관계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마르크스는 兩主義의 일체화에 의해 資本主義體制의 붕괴라는 비전을 가지고 情熱的으로 행동하고 그 理論化를 시도했던 것이지만, 그 붕괴라는 필연성의 예측은 오늘날까지 실현되지 않았다. 그러나 마르크스·엔겔스가 투입한 思想的 情熱은 강력하게 뿌리를 내리고 특히 「解放」이라는 말의 매력은 위력을 발휘해 세계의 노동자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또한 경제학의 領域에서는, 자유주의 경제학자에 있어서도 노동가치설이 스미드와 리카르도 이래 여전히 매력적인 과제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3. 流通經濟學의 勝共論

—마르크스학설과 그 사상체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1) 「存在와 當爲」(Sein-Sollen)의 價値論

경제학은 「사람과 물건」과의 交流關係의 研究學이다. 이 관계에서 사람은 主體이고 물건은 對象이다. 통일원리에서는 이 교류관계를 「授受作用」의 관계로 이해한다. 인간은 생존을 위해 물건(재물)을 필요로 하므로 지상의 만물은 인간의 生存을 위해 귀중한 用役의 제공이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인간의 萬物主管) 인간은 이 財物의 用역에 가치(감사의 마음)를 느끼는 것이다.

이 경우, 인간이 대상으로서의 물건에 대하여 품는 감정(물건의 역할을 보는 思考觀)을 주관적 가치관이라고 한다. 이 경우, 물건 자체도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물건 본래의 內實의 특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것을 물체 자체의 가치로 보고 물체의 객관적 가치라고 말한다. 따라서 사랑과 萬物(財物)의 교류관계는 두가지 가치작용의 통합이라는 말이 된다.

本稿의 앞에서 소개한 한계효용학파의 가치관은 일반적으로 主觀的 가치관이고, 베엘 바베르크는 물건에 대한 주관적 가치관을 「행복」(Wohlfahrt) 概念에 결부시켜 「주관적 의미에서의 가치는 한가지 財 또는 財量이 일정한 主體의 幸福目的에 대하여 갖는 마음가짐」이라고 여기고, 「그 행복목적이란 주체에 있어서 노력에 해당한다(erstrebenswert)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그 물체의 객관적 가치란 「일정한 外的 客觀的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財物의 適性」이라고 여긴다.

위의 기술에 의하면 財質의 가치는 인간의 주관적 의욕에 토대를 두느냐, 혹은 재화 그 자체에 존재하느냐로 대별되는데,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상품이라는 화폐의 가치를 勞動量에 결부시켜서 價値의 客觀性을 주장하는 입장이 마르크스 경제학의 노동가치설이며 이 객관적 가치설에 단호하게 반대한 것이 限界效用學派의 입장이다.

統一原理에 立脚한 기본적 가치분야에서는 존재(Sein)의 가치와 當爲(Sollen)의 가치 양자를 인정한다. 우리는 존재의 原點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의 屬性인 완전성을 인정하고 거기서 객관적 존재기준을 추구한다. 즉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속에 존재의 기준이 있고, 가치는 그 본질 속에 존재한다고 이해하는 것이다. 그 본질개념 속에 「사물은 어떻게 있는가」(존재)와 「사물은 어떻게 있어야 하는가」(당위)의 2要件이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原理的 「존재」의 要件은 「性相과 形狀」의 결합체라는 것과 그리고 「陽性과 陰性」(플러스성과

마이너스性)의 결합체라는 것이다. 또한 「當爲」의 요건은 二性性相의 존재의 「결합과 통합」의 자세로서 그 결합방법을 授受作用이라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統一原理的 가치는 上記의 존재와 당위를 요건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경제학적 해석에서 찾으면, 財物 자체에 內在하는 가치는 존재(Sein)의 가치이고 주체와 대상의 交流關係(授受作用)에 의한 것은 당위(Sollen)의 가치이며, 財貨의 사용가치(Value in use) 또는 効用價値(Value in utility)를 交換價値(Value in exchange)라고 할 수 있다.

통일원리는 위와 같이 사물의 존재와 당위의 二要件의 종합으로 하여 形而上學的 가치판단과 科學的 가치판단의 통합 가능성을 실천하려고 한다. 사물의 特質 분석에서 전체의 結合法則을 해명하려고 하며, 個는 全體의 부분으로서 가치적 존재인 동시에 當爲的 價値體라는 것을 탐구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여 모든 事物(財物도 포함한 被造物)은 전체에 대하여 일정한 가치를 지니며 전체를 위해 도움을 주는 존재라고 이해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存在와 當爲의 가치분석방법은 경제학의 영역에 새로운 가치판단의 법칙을 발견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만일 經濟社會에 새로운 가치관이 誕生한다면 경제활동도 倫理性을 되찾고 자본주의사회 全體가 進進의 방향으로 길을 추구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부분으로서의 經濟活動이 전체의 部分構造로서 目的性을 確認하게 되면, 공산주의도 마르크스주의도 저절로 극복될 수 있으리라고 믿어진다.

(2) 원한의 이론에서 사랑의 이론으로

금년 3월(20~24)에 있었던 統一思想과 勝共理論 研修會(熱海·中田屋호텔)에서 李相憲선생은 「마르크스와 그 공산주의學說 批判」의 강의 중에 새로운 마르크스사상 分析을 행했다. 그 골자는 마르크스주의는 「원한의 사상」으로서 마르크스가 자라난 가정환경이라든가 그가 체험한 社會的·政治的 환경이 마르크스의 思考를 反抗과 憎惡로 이끌었다는 것이었다. 大自然의 환경은 동식물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명백하지만, 人間環境과 社會環境은 인간 그 자체의 성격을 바꾸고 사상과 사고방식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것이다. 李선생의 분석은 마르크스라는 인간이 왜 그와 같은 학설과 사상체계를 만들게 되었는가에 대하여 원점을 거슬러 올라가 자세한 설명을 하셨던 것이다.

마르크스가 종교를 미워하게 된 것은 양친의 宗教上의 對立 때문이고, 또한 그 자신의 연애의 파탄도 종교에 원인이 있었다는 것이다. 또 당시의 社會的 조건이 그를 엄격한 人生觀이나 世界觀을 갖도록 만들었다는 것인데 우리는 마르크스의 學說도 思想도 당시 사회의 생산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했다. 그는 理知的이었기 때문에 당시 독일의 主流哲學인 헤겔철학을 이해하고 그 精神論的 분석방법을 완전히 다른 自己目的의 唯物的 抗爭哲學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었고, 또한 당시의 代表的 唯物論者 포이엘바하의 『기독교의 본질』에 감격하여 이것을 흡수하고

더 나아가 포이엘바하의 유물론도 자기목적으로 轉用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그가 革命과 解放에 열중하게 되었던 것도 당시의 사회가 좋은 기회를 제공못했기 때문이라는 환경 책임론이 나오고 있다. (깃곳은) 견해를 취한다면 당시의 「社會的 必要」가 마르크스의 원한의 사상, 解放思想을 만들어냈다는 말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시의 사회적 필요성에서 나온 思想이 인류 전체의 평화와 안녕에 큰 장애가 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 「蕩滅復歸」를 위한 엄숙한 노력이 요청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우리는 蕩滅復歸를 위하여 「마르크스의 원한」(The curse of Marx)과 관련하여 「가인의 원한—저주」(The Curse of Cain, Gen 4. 11~12)라는 말을 상기한다. 마르크스는 분명 카인의 존재로서 「카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라는 것이므로 統一原理가 이 카인의 죄에 대한 蕩滅役을 담당코자 하는 것이다.

마르크스主義의 사상적 構成을 분석하면 세가지의 學問的 原泉이 발견되리라고 생각된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①은 헤겔철학, ②는 영국의 古典派 경제학, ③은 프랑스의 空想的 사회주의이다. 이 三原點에서 마르크스主義 思想은 태어났다고 보고 ①에 대해서는 이미 상세한 분석과 비판, 극복이 끝났으므로 문제는 없고, 또 ③에 대해서는 空相의 社會主義를 과학적 사회주의로 과장해 불러 解放論理를 만들어낸 마르크스의 의도가 명확하고, 사회주의 체제 아래서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보다 해방되었어야 할 노동자는 곤란한 조건에서 규제당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마르크스의 이론은 實踐的으로 극복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②의 고전파 경제학이 마르크스의 價値論에 끼친 영향과 고전파 경제학의 기본적 관념이 오늘의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규정하면서 이 체제 자체속에서 각종의 限界症狀을 露出하기 시작하고 있는 점이 긴급히 비판받아야 할 문제라고 할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古典派 경제학이나 新古典派 경제학도 기타 자유주의 경제학 일반이 경제 활동의 指針으로 삼는 「交換의 論理」에 큰 잘못과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모든 경제활동은 단순화하면 交換關係로 主體와 對象의 가치 교환작용이라고 이해되고 있다. 확실히 경제의 교환관계는 擴大하여 시장경제체제라는 복잡한 관계를 보더라도, 이 관계에는 반드시 賣者와 買者, 供給者와 需要者가 서로 작용하는 메카니즘으로 分析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주의 경제학의 交換論理에서는 교환의 당사자는 서로 상대를 수단으로 삼아 자기의 營利目的을 달성하는 일의 正當性을 확인하고 있다. 한쪽은 다른쪽을 수단으로 삼고 다른쪽은 그 상대방을 수단으로 생각하며 서로 경합하고 자기목적의 實現을 생각한다. 마르크스는 이 교환의 論理를 투쟁의 논리로, 변증법적으로 이해했는데, 자유주의 경제학도 實質的으로 상대를 수단으로 삼아 自己目的을 실현하려고 하는한 마르크스와 마찬가지로의 論理를 실천하고 있는 셈이 된다. 여기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

자본주의 체제의 崩壞를 예측한 마르크스는 이 交換의 論理가 차츰 확대하여 시장경제 시스템이 되면 서로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經濟競爭이 된다고 이해한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이 상

대방을 희생으로 삼아 自己目的을 달성하려고 하는 交換의 논리를 수정하는 새로운 가치관의 논리가 없을까 하는 문제이다. 그 논리아말로 동일원리의 授受作用 논리이며, 이 가치철학은 서로가 준다고 하는 상호관계에서 서로 공통의 가치를 나눈다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승공의 논리와 관련하여 自由主義의 競爭主義 교환의 논리 극복의 문제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K.E. 불딩교수가 이미 그의 저서 『사랑과 恐怖의 경제』(The Economy of Love and Fear, 1973)를 발표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공포의 경제에서 사랑의 경제로, 授受作用의 경제로의 길을 긴급히 탐구해야만 할 것이다.